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하나금융의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같이(가치) 도시락 지원 사업 협약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왼쪽 사진 오른쪽)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같이(가치) 에듀 대학생 멘토 1기 발대식(오른쪽 사진). 사진제공 | 하나금융

하나금융과 같이 만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의 행복·성장 플랫폼 추구
결식 청소년에 '같이 도시락' 제공
'같이 에듀'로 교육 격차 해소 나서
김정태 회장 "복지 사각지대 지원"

하나금융의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공익재단법인이다.

하나금융의 ESG 중장기 비전인 'Big Step for Tomorrow'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기존 운영 중인 '하나금융공익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미소금융재단' 등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영유아, 청소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전반, 시니어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종합 체계를 갖추게 됐다.

● '청소년의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추구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추구다. 미래 세대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 협업이 가능한 전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하나금융이 추구하는 '행복한 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설립했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과 연구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기회와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호시설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자살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핵심 사업이다.

먼저 '보호시설 청소년 학습 및 자립지원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을 돕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층 심화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보호시설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1 학습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결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조손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병행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분야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자살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첫 걸음으로 '같이(가치) 도시락'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결식과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 구로구, 노원구, 은평구와 함께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약 500가구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각 구의 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추천했다. 주 1회 국내산 원재료로 당일 제조 및 배송을 통해 균형 잡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 선정 가구당 3, 4인분의 충분한 양으로 제공한다.

'같이(가치) 에듀' 지원 사업도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의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에서 선정된 2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11월까지 대학생 멘토의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발대식도 열었다.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멘토와 대상 청소년 전원을 1:1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 2회 실시되는 학습 멘토링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함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은 "하나금융의 ESG 경영 확산 의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우리은행-세븐일레븐 'My편의점' 배달 서비스

우리WON뱅킹 앱으로 주문 편리
내년 1월까지 배송료 무료 이벤트

우리은행이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My편의점'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뱅킹 우리WON뱅킹에서 오전 11시~오후 11시 세븐일레븐이 판매 중인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1만5000원 이상 주문·결제 시 고객이 신청한 장소로 편리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별도 세븐일레븐 회원가입 없이 우리WON뱅킹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배달 요금은 3000원이다. 우리WON뱅킹 앱 전체메뉴-생활편의-생활금융-My편의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 모바일 쿠폰과 배송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우리은행 측은 "My편의점은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우리WON뱅킹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향후 더욱 편리한 생활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가맹점 매출 증진이 기대된다"며 "배달 관련 상품, 마케팅, 제휴 채널 등을 확대해 편의점 특성에 맞는 빠르고 편리한 배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모델이 우리은행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손잡고 내놓은 'My편의점'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한편 우리은행은 2030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디지털그룹 내 'MZ마케팅팀'을 신설했다. 과장급 팀장을 포함한 모든 팀원을 MZ세대로 구성했다. MZ세대 고객 대상 신규 콘텐츠 발굴, 상품 개발, 융복합 서비스 제휴 등 MZ세대 고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취향 저격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롯데카드-카카오뱅크 '호랑이 춘식이' 카드 출시

롯데카드와 카카오뱅크가 2022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춘식이 콘텐츠를 활용한 한정판 '카카오뱅크 롯데카드'(사진)를 내놓았다. 호랑이 의상을 입은 춘식이 디자인을 적용했다. 춘식이 한정판 스티커 2매를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구성했다. 사전예약은 30일까지 롯데카드 로카 앱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정판카드를 사전예약하고 발급한 고객 2022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모바일 이용권을 증정한다.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행운의 룰렛 이벤트'



상상인저축은행이 31일까지 '뱅뱅뱅 행운의 룰렛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디지털금융 플랫폼 뱅뱅뱅 수신 1조 원 돌파 고객 사은 행사다. 뱅뱅뱅 앱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상상인과 발음이 비슷한 숫자인 332명을 선정해 특판 상품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뱅뱅뱅 33.2% 정기적금(32명), 뱅뱅뱅 3.32% 정기적금(150명), 뱅뱅뱅 3.32% 정기예금(150명) 등이다. 정기적금은 가입기간 6개월이고 가입금액은 월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다.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이벤트는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당첨 시 추가 참여가 제한된다.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10기 모집



NH농협은행이 29일까지 자사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대학생봉사단 'N돌핀' 10기(사진)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대학교 2, 3학년(2022년 3월 기준 재·휴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활동우수자에게는 은행장 명의 표창, 장학금 지급 및 입사 특전(1차 서류전형 면제)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발자는 내년 3~10월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하는 교육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21일 (화) 음력: 11월 1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우울증을 조심해야겠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나아지겠다. 기발한 묘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빚은 갚을 수 있는 날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일이 허사로 끝나기 쉽다. 자중자애 하라.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너무 서두르지 말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실리를 챙기려 하는 날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돼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음악·영화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1일(화)

서울 10/0	4 / 8	인천 0/0	4 / 7	춘천 30/0	2 / 9
강릉 0/0	6 / 14	대전 30/0	3 / 12	전주 30/10	4 / 13
광주 20/10	4 / 13	대구 20/0	1 / 13	부산 0/0	7 / 15
창원 0/0	4 / 13	제주 0/0	10 / 17	지역 / 날씨	강수 확률 (오전/오후)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2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